

8·2부동산, 풍선 효과 억제되나?

정부, 10월 발표 가계부채 종합대책서 초점 맞춰질 듯

정부가 10월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의 돈을 조이고 8·2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신용대출 등이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15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 상환 기간을 15년 수준으로 줄이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할 때 월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8·2대책에서 다주택자의 DTI를 최저 30%까지 낮춰왔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주택담보를 받을 길이 막히는 셈이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차주의 소득 확인을 보다 철저하고 임대소득 증가·감소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 DTI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 DTI는 소득의 안정성·지속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일부분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장기대출의 경우 연리율을 감안해 장래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 심사시 해당 주택담보의 원리금뿐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의 원리금 상환액도 DTI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 등 과열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DTI보다 강한 여신심사 기준인 총채적상환능력비율(DSR)을 금융권 여신심사 지표로 도입된다.

금융업체들이 DSR을 도입하면 주택담보 대출 이후 신용대출이 팽창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SR은 주택담보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양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로 대출했다고 하면 금융감독원 감사 등을 통해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단순한 부채 억제책이 아니라 부동산, 복지, 일자리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취약 계층의 경우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고 지역업자는 신규 진입, 생계형, 경쟁력이 취약한 경우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실적·페업으로 상황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체가 된 취약 차주의 경우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모기지는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고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 대출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장기 소액연체채권 소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조율하고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뒤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고 실행 시기, 범위, 방법 등을 놓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북한 관련 리스크와 각종 대외 불확실성,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고 지영업자는 신규 진입, 생계형, 경쟁력이 취약한 경우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뉴시스

LX, 공간정보 시뮬레이션 경진대회 개최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도시건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시공간 통합시뮬레이션 구축을 위한 '제4회 공간정보 시뮬레이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가상공간을 통해 공간정보의 상상력을 펼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 구축'으로 청년과 노인들에게 일자리 확대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해 대회와는 달리 도시 제한이 없으며 대상 도시는 자유선택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운영소프트웨어는 시티즈스카이라인을 사용해야한다.

제출목록은 도시통계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샷과 함께 설명문서(A4 2~3페이지)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접수는 오는 10월 20일까지다.

작품접수는 10월 한 달 간 홈페이지(ckts.lx.or.kr)에서 이뤄지며 11월 수상작을 발표한다.

포상은 오는 12월 총 중 15편을 선정해 총상금 1950만원이 수여된다.

출품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수상은 1인당 1작품으로 제한된다.

/김민근 기자

'한컴 말랑말랑 지니톡' 오프라인 제품 출시

한글과컴퓨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통번역 서비스 '한컴 말랑말랑 지니톡' 오프라인 제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컴은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은 해외 지역이나 비행기 안에서도 통번역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 OTG USB 메모리 형태의 '지니톡 오프라인'을 출시했다. 사용자는 '지니톡 오프라인'을 스마트폰에 꽂기만 하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동통번역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음성인식과 음성 합성기술을 이용해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통역이 가능하며, 문자나 SMS 등 직접 입력한 텍스트도 번역할 수 있다. 하나의 제품으로 3개의 휴대폰까지 사용 가능하며, 안드로이드 4.1 이상에서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컴 관계자는 "자동통번역솔루션을 다양한 하드웨어에 적용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높이고 동시에 서비스 영역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이러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소프트웨어인만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컴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공동 개발한 '한컴 말랑말랑 지니톡'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어 기반 통번역 서비스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언어장벽 없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마음의 상처, 반려동물들과 교감 나누며 '힐링'

농진청, '동물매개치유 문화교실' 전개

농촌진흥청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마음을 치유하는 '동물매개치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진청은 도시민들에게 반려동물과 교감을 나누는 치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6일 전북혁신도시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동물매개치유 문화교실' 3기 수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주·완주지역을 비롯한 서울·청주지역 등 도시민 가족 35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의 몸짓언어 이해하기 특강을 시작으로 원광대 소속 동물매개심리상담사들이 이끄는 '침여수업'으로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치유 도우미견과 눈

맞추기, 안아주기, 쓰다듬기 등 감정 나눔 활동을 통해 동물과 교감하고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앵무새, 페럿(족제비과)의 신체 특징을 알아보고 산책 등의 활동을 받았다.

농진청은 동물과 함께하는 치유 활동이 신체적 효과는 물론 사회적, 정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농진청이 학교에서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생명존중의식 8%, 인성 8.2%, 자아존중감은 13.2% 향상했으며 부정적 정서는 33.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오영규 기술지원과장은 "농촌진



농촌진흥청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마음을 치유하는 '동물매개치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흥청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치유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잔액 26조7000억 집계

제2금융권에 묶인 고금리 대출 잔액이 25조원을 넘어섰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 20%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는 2금융권 대출 잔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체가 8조원(181만명)으로 가장 많고 카드사 7조9000억원(371만명), 저축은행 6조8000억원(108만명), 카드사 제외 여신전문금융회사 4조원(57만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업체는 중복이 포함된 수치다.

대부업체의 경우 지난해 전체 대출잔액이 14조64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55%)이 고금리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평균 금리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 20%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는 2금융권 대출 잔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체는 잔액 기준으로 25%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의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이자율을 지속 인하했으나 2금융권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규취급 중단 등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과 시장추이를 모니터링한 후 추가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자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호박

미나리

장미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 오태식
상임이사 (경제) 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농업공동조합